

# 포천문학 제8집 250만원 · 영평팔경가 600만원

## 경기문화재단 2007년도 공모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영평팔경가 연습장면

1997년부터 매년 문화예술진흥금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에서 2007년도 공모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도에는 신청된 1천295건의 사업 중 392건에 대해 총 23억5천6백만원의 지원을 결정했으며,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006년도 520여만원에서 600여만원으로 약 80만원이 상승했다.

선택과 집중지원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전문문화예술인 지원분야

에는 신청건수 689건 중 194건이 지원 결정되어 28%의 지원율을 나타냈으며, 건당 평균지원액도 800여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다건소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생활문화예술 지원 분야의 경우에는 신청건수 379건 중 151건이 지원 결정되어 40%의 지원율을 나타냈으며, 건당 평균지원액은 340만원으로 나타났다.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지원사업 및 금액의 특징은 전

문공연예술활동 전문음악 분야에 의정부오페라 카렌 공연에 3천만원이 지원결정되었으며 국제문화예술활동 분야에 의정부 이미술극단의 중국 워크샵 및 공연 1천만원, 포천(사)한국무용협회 포천시지부의 벨라루시 고리인을 위한 한국인의 밤에 1천만원이 지원 결정됐다.

다음은 각 경기북부 각 지역별 지원현황이다.

○의정부시 ▶시집 [네 얼굴은

불빛 아래] 발간 하재연 500만원 ▶[죽을 수 있는 사람 -90년대 이후 미술에 관한 명상 박종주 700만원 ▶2007 마구리밴드 2집 음반 발매 기념 콘서트 마구리밴드 김규상 300만원 ▶오페라 [카렌] 공연 의정부오페라단 강신태 3천만원 ▶2007 희망의 메시지 [바람을 타고 나는 새] 풍물굿패 살판 하창범 600만원 ▶2007 중국 워크샵 및 공연 이미술극단 이미술극단 250만원 ▶의정부 시집 [새가 사는 집] 발간 및 시낭송회 김상숙 200만원 ▶수필집 [해질녘에 오세요] 발간 이영순 300만원 ▶생활속의 발견전 여성그림단체 화소회 정은숙 300만원 ▶엄마가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Air클래식기타합주단 오영란 250만원 ▶창립3주년 기념공연 [여성친화, 풍물천하] 여성풍물패 한비 원운정 300만원 ▶제2회 의정부소리난장터 풍물패 샴터 박영식 400만원 ▶나눔과 배움의 풍물동아리 일과놀이 의정부YMCA 김종평 300만원 ▶의정부 열수! 우리가타 우리폼트 의정부교육연대 박태운 320만원 ▶포천시 ▶2007 숲-꽃으로 피어나다 수목원작가회 홍승표 400만원 ▶제4회 포천현대미술제 진신미술관 이경진 800만원 ▶[부드러운 긴장] 제5회 조각개인전 김정미 400만원 ▶국악과 관현악이 함께 하는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경기소리극] 사)경기소리보존회 포천지부 박영실 600만원 ▶포천 포천시민을 위한 전통무용의 향연 [소리 그리

고 몸짓 사)무용협회 포천지부 한동영 500만원 ▶2007 벨라루시 고리인을 위한 한국의 밤 (사)무용협회 포천지부 한동영 1천만원 ▶소설집 [광릉] 발간 김창호 150만원 ▶[포천문학] 8집 발행 사)문인협회 포천지부 이재욱 250만원 ▶SING! SING! SING! 포천소년소녀합창단 방인구 250만원 ▶마흔남성합창단 14회 정기연주회 마흔남성합창단 최치선 250만원 ▶양주시 ▶전문미디어 양주 유민의 땅 [The unrooted 사진전] 성남훈 650만원 ▶양주(양주문화)6호 발간 사)문인협회 양주지부 오영수 250만원 ▶제7회 화원전 사)미술협회 양주지부 안용현 250만원 ▶동두천시 ▶노석미의 아트북(토시) 출간 노석미 900만원 ▶제7회 소요국악한마당 사)국악협회 동두천시주 동두천시소년소녀합창단 김지현 350만원 ▶연경군 ▶시집 [춤추는 달] 발간 김경근 150만원 ▶동인지 [불란홍] 10집 출간 및 시화전 그리고문화회 문춘시 200만원 ▶대추나무연회전시회 대추나무연회 김용수 450만원 ▶Focus 타악이 앙상블의 [문화사각지대에서 만나는 타악기의 향연]신서사랑회 위성철 박영실 600만원 ▶포천 포천시민을 위한 전통무용의 향연 [소리 그리

### 목회단상

## 시작하는 마음



김형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정해(丁亥)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시간은 다 귀하고 값진 것이다. 그러나 1년 365일 가운데 그래도 가장 뜻 있고 새로운 의미가 있는 날은 한해를 시작하는 날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한 선물을 받았다.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빈부귀천 모두가 똑같은 365일의 시간을 받았다. 이 시간의 선물(禮物)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의 과제다. 근면과 성실로 감사하며 쓰려면 반드시 시간이 아닌 축복(祝福)의 열매로 갚아 주실 것이다.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가지 있게 관리하고 사용해 보자. 시간은 남이 관리해 주지 않는다. 내가 바로 쓰지 않으면 무서운 후회와 대가를 치르게 된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니다. 책임이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오드리 헵번은 이런 교훈을 했다고 한다. "아름다운 입술을 원하느냐? 그러면 남을 칭찬하는 입술이 되라. 네가 아름다운 눈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남의 좋은 것만 보아라"라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눈도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에 수고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손을 주신 것은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쓰고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해서 베푸는 손이 되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본다.

한 손으로 내 것은 무섭게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남의 것까지 갈탈하는 손이 되어서는 안된다.

2007년(丁亥年)은 60년만의 '황금돼지' 해라고 한다. 목석이 아닌 잔치집의 즐거움의 식탁(食卓)이 되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자. 나누려는 마음속에 한결 여유로운 삶이 있을 것이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결과는 칭찬과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 하신다. 마태복음 25장21절에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작은 실천이 큰 결과를 만든다.

문의) 031-532-2489

### 특별기고

## 자연친화적 설계 - 바람



장덕철 (포천 노인전문병원 한방원장)

건축의 역사는 길다. 사람들이 집안에 인위적인 기계장치(예: 냉난방장치)를 사용할 수 없었던 원시시대부터 불과 5~60년 전까지 사람들은 최대한 자연에 맞추고, 자연을 따르는 건축(design with nature)을 해왔다. 이러한 옛사람들의 경험에서 우려나 [축적된 지혜]가 요즘에는 필요가 없을까? (바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보자.

중동의 사막지방의 건축에는 <

바람을 잡는 굴뚝과 통풍구(windcatcher and vent)가 있다. 이는 옛 중동 사람들이 여름에 사막지방의 더운 열기를 피할 수 있도록 고안해 낸 장치이다. 소위 <굴뚝 효과>라는 것을 이용한 것인데, 굴뚝 효과란 좁고 긴 통을 지나가는 바람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좁은 굴뚝길이나 복도의 끝에 있으면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이나 산골짜기의 바람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바람이 연못이나 분수를 통과해서 들어오면 훨씬 시원한 바람을 더운 여름철에도 즐길 수가 있다. 중동지방의 옛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건축에 잘 이용해서 열사의 여름을 시원하게 보낸 것이다.

또한 중동은 나무가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지붕을 흙벽돌만을 이용해

서 울릴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 냈다. 그것이 바로 둥근 돌지붕이다. 그리고 이 둥근 돌지붕 맨 위 에 구멍을 뚫었다. 바람이 찬 곳에서 더운 곳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아침의 햇볕에 덮혀지는 부분과 저녁에 덮혀지는 부분의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더운 여름날의 땀을 식힐 수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기집도 중동지방의 건축에 비해서 못할 바가 없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구조이다. 조그만 마루는 집의 내부와 바깥의 자연의 가운데에 위치한 중간지대이다. 여름에는 뒤안으로 뚫린 봉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낮잠을 잘 수 있는 구조이다. 흙벽과 초가지붕은 숨을 쉬는 구조이다. 그래서 덮혀진 구들장에 누워 있으면서도 신선한 공기를 동시

에 호흡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옛사람들의 건축이 요즘의 딱딱한 공간에 에어컨과 중앙집중난방을 하는 건축에 비해서 뒤떨어졌다고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론적으로 <옛사람 것>이라고 해서 백안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수천, 수만 년 동안 축적되어온 지혜가 스며있는 집들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요즘의 <자연 건축>의 비밀이 숨어있는 것이다.

흙집에 냉난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을 따르는 설계를 하면 냉난방 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 아이와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맑은 공기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필자연락처 : 011-628-4214

### 보육상담 15

## 2007년 달라지는 보육제도(1)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에 통해 1월 4일 보육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하여 보육료 지원 확대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한 달라지는 보육예산, 제도를 발표하였습다.

2007년도 보육료 지원제도가 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차등 보육료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2007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를 살펴보면 지난해 3~4세 기준으로 지원하던 것을 세분화하여 3세, 4세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계층간 지원도 아울러 세분, 확대 되었습니다.

2. 취학 전 아동의 학업준비 지원을 위해 취학 전 만5세아 보육료 지원 또한 월평균 수준을

조정하여 지원 아동의 수요를 확대하였습니다.(지원아동 150,000명, 지원금액162천원)

3.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의 30~50%)

4.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 무상 보육 지원 (지원아동 : 15천명~17천명, 지원단가 : 350천원~361천원)

◆2007년 보육료 지원 단가

연령별	0세	1세	2세	3세	4세
지원단가	361,000원	317,000원	262,000원	180,000원	162,000원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 지원비율

구분	소득수준	지원비율(정부지원단가 대비)	
		2006	2007
1층	기초수급생활자등	100%	100%
2층	차상위	100%	100%
3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50%)	70%	80%
4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70%)	40%	50%
5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100%)	-	20%



인경준 중앙특수아동복지원장 (031-534-0277)

# 동성유니테크

최첨단 설비 · 우수한 기술력이 함께하는 코끼리표 동성천(면) 테이프

UNI-TECH  
ELEPHANT

◆접착 테이프   ◆순간접착제   ◆우레탄폼

◆수입 마스크   ◆스프레이 · 락카   ◆양면 테이프

Tel. 031)532-8004   Fax. 031)532-5792